

‘환매 중단 사태’ 라임운용, 인력 줄이탈에 ‘0|중고’

라임자산운용 임원 9명 중 4명 최근 사임…조직 축소도
금감원, CIO 외부 채용·직원 파견 등 업무협약도 검토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정분인인 라임자산운용이 인력 이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인력 문제로 사태 수습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운용책임자(CIO)를 외부에서 채용하도록 하거나 금감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탁고 감소로 재무 위기”…핵심 임원·사내변호사 등 최근 사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김 모 주식운용본부장 이사, 김 모 부동산본부장, 소 모

기업투자본부장, 임 모 기업투자본부 이사 등 비등기임원 4명이 지난해 말 사임했다. 라임은 공시에서 ‘회사상황에 의한 면직’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라임운용의 해지펀드 성장을 주도했다. 2014년 대신자산운용에서 35세의 나이로 주식운용본부장 겸 최고운용책임자(CIO)에 발탁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부동산본부장도 미국계 부동산컨설팅 회사 CBRE와 KT의 부동산 자산 관리사 KT AMC 출신으로 부동산본부를 이끌어 온 핵심 인력이다.

소 전 본부장은 라임이 2018년 흥국의 HQ캐피탈PE에서 영입해

온 인물로 지난해 캐터스PE와 함께 국내 최대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임 전 이사도 소 전 본부장과 함께 라임 PE본부를 이끌었다.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대체투자전략본부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했던 이모 부부장도 연초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력들의 연이은 퇴사로 남은 임원은 5명에 불과하고 직원들의 출퇴사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은 최근 기업투자본부를 없애고 대체투자조직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의 펀드 수탁고 감소와 재무 상황 악

화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임직원 퇴사가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라임의 펀드 설정액은 4조3516억원으로 수익률 돌려막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인 7월 말(5조8672억원)과 비교해 1조5156억원 감소했다.

◇ ‘사태 수습 먼저’…금감원, CIO 외부 채용·직원 파견 등 검토

라임 측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종합 평가했던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정으로 원종준 대표이사가 사태 수습을 종결하고 있다.

금감원과 라임은 최고운용책임자(CIO)를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금감원과 판매사 직원 등을 파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용 공고를 냈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의 자산 회수율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모든 방안이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운용은 이르면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에 환매가 중단 모(母)펀드들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GS25, 계산대 없는 무인 편의점 선봬

GS25는 계산대 없는 미래형 편의점인 ‘GS25을지스마트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매장은 BC카드 분사에 위치하며 BC카드, 스마트로와 함께 매장을 개발했다.

고객은 BC카드의 모바일 결제 앱 BC페이북의 QR코드를 출입문에 접촉해야 입장할 수 있다. 점포에 들어가면 34대의 ‘딥러닝 스마트 카메라’가 고객 행동을 인식한다.

매대 별로 장착된 총 300여 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고르는지를 감지해 딥러닝 스마트 카메라와 함께 고객의 소비 행동을 학습하고 규명한다. 물건을 고르고 출입문을 빠

져나오면 AI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해 고객에게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GS25는 디지털 유통 기술을 더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래형 매장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GS25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무인 매장,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위성 점포, 야간 미영업 점포 등 특수 점포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S25 관계자는 “미래형 GS25 운영을 통해 단순히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선물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12·16대책 시효 다하면 후속책”…고가주택 타깃 계속된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중단없는 ‘강력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과 전셋값 인상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가주택 타깃의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시사했다. 투기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끌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좋은 방향이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거래세의 경우 지방의 주요 재원인데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12·16 대책의 효과가 다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유세 인상 카드가 후속 대책의 핵

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보유세는 사실상 인상효과를 가져간 상태”라며 “다만 투기수요의 영향이 계속될 경우 보유세의 직접 세율이 인상되는 방향이 다음 수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접값 상승률의 둔화 외에도 고가주택의 티킹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우회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주 중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초 반기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살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